

불교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 교과서 개발 : 제도와 현실, 그 만남과 평행의 역사*

김은영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s for Buddhist Missionary Schools: System and Reality, the History of Encounter and Parallel

Kim, Eunyoung

Dongguk University

tara@dg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issuance of religious textbooks following the revis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issues revealed in the process, and to find a future direction for desirable religious education in the future. Religious textbooks have also been published as accredited books since the adoption of the Religion subjects during the 4th national curriculum.

Accordingly, by analyzing the history and changes of textbook development in Buddhist schools,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state curriculum and textbook issuance were examined. Religious education was introduced in Buddhist schools, and the period when the national curriculum was established systematically and at the same time promoted its own development took precedence. However, as institutionalization acted as a kind of pressure in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the emphasis was placed on administrative introduction rather than gradually reflecting on the content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mbiguity of the religion curriculum of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also reflected in textbooks. This is connected not only to the problem of Buddhist textbooks but also to the universal problem of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In addition, the future task of developing textbooks for realistic religious education was presented. First, social consensus is required for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In public education, while ensuring religious freedom, which is the basic human right, it is necessary to seek new encounters and turning points that can realize the founding ideology of the municipal school. Next, it needs to review the current textbook accreditation system. It is hoped that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ssuing various textbooks that can respond to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educators and learners will be supported.

Finally, deep reflection and practice on the circular curriculum between specific religious education and universal religious education must follow. Through this, religious school education in Korea can lead to universality that reflects on learners themselves and the world through the specificity of individual religions. I hope that the *Religion Studies* will be the starting point so that the religious conflict in our society will be resolved through correct religious education and become a new alternative.

Key words: Religious Education, Textbooks on Religion, Buddhist Textbooks, Buddhist Mission School, Accreditation Process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41-54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17>

Received: November 27, 2020

Revised: December 14, 2020

Accepted: December 28,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이 논문은 <2020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중등 종교 교과서 내용구성과 집필의 문제>(2020.11.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1-A0000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언

학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교재와 매체 중에서도 교과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과서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목표하는 학교·학년급별 학습과정이 잘 적용되도록 개발될 것을 요구받는다.¹ 이런 이유로 특정 교과서의 역사와 변화를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의 중등 종교 교과 개정에 따른 교과서 발행의 변천과 그 과정에 드러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종교교육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교과서의 종류는 국정도서·검정도서·인정도서로 구분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종교 교과가 명칭으로나마 국가교육과정에 등장한 것은 제4차 국가교육과정(1981.12.31~1987.3.30)이 최초였다. 그 이전까지 종교계 사학의 종교 교과서는 모두 개별 종교나 학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발행한 것으로 국가 교과서 제도의 검인정 대상이 아니었다. 국가교육과정에 종교 교과 채택 이후에야 정식 교과서 발행의 근거가 생겨났고, 그 이후 인정도서로 발행되어 왔다. 동시에 국가교육과정의 종교 교과가 내포한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²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립학교 종교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진전된 바 없었다. 발표된 연구들은 주로 제도,³ 혹은 각 종파나 교단의 교과서 현황과 내용에⁴ 집중되어 있다. 제도의 변화가 교과서 개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흡했던 것이다. 현장의 개선과 퇴행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제도는 탁상행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구는 그 생명력이 지속될 수 없다.

이에 중등 종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계의 종립 중등학교, 그 중에서도 다수인 대한불교조계종 관련 학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개발의 역사와 변천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시기 별로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교육과정의 개정이 교과서와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계 교과서 문제가 특정 종교에 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종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더 나아가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넘어 현실적인 종교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II. 불교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 교과서

이웃 종교와 마찬가지로 국가교육과정에 종교 교과가 정식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불교계도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여러 차례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부(문교부)나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로 발행하였다. 초기 자체 교과서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모든 교과서들의 편찬주체, 내용 등의 다양한 요소와 변천을 고려해보았을 때,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종교 교육 초기의 자체 교과서 도입 시기, 불교교육단체의 공동 교과서 제작 시기, 그리고 인정도서 발행 시기가 그것이다. 각 시기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별 교과서 도입 시기: 1958~1979

불교계의 근대적 중등 교육기관의 설립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교과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교학수업이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교학(불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법사(종교교사)들이 각자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진행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교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950년 후반부터이다. 이 당시 능인고등학교 등 일부 불교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불교독본』이 교재로서 채택된 기록이 남아 있다.⁵ 이 책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진들이 공동집필했으나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절한 교학수업 교재가 없던 불교계 중등학교들이 이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면서, 후속으로 하(下)권도 발행된다.⁶

이후 개별 학교(학원) 차원에서 보다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부산 지역 해동중학교에서 『진리의 생활』, 『부처님 생활기』와 같은 2권의 교재가 발행되었다.⁷ 이어서 수도권 청담학원에서도 교학수업을 위한 자체 『불교독본』을 5권에 걸쳐 각 권에 불교와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여 발행하였다.⁸ 국가 차원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시기에 별도의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을 통해 불교교육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불교계 학교교육이 시작된 40년대 중반을 지나 50년 후반부터 70년대까지는 교과서 채택과 개발을 통한 종교교육의 체계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교과서들의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교의 교리, 역사, 문화를 익히는 것에 종교교육의 목표가 집중되어 있었다.

2. 불교교육단체의 설립과 공동 교과서 제작 시기: 1967~1997

교학 수업을 통한 종교교육의 역사가 쌓이면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불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지가 모여 1962년 불교종립학원연합회(현 불교교육연합회)가 결성되었다. 불교종립학원연합회에서는 청소년 불교교육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도 교과서 개발에 큰 힘을 기울였다. 단체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였고,⁹ 최근까지도 개별 불교 종립학교들이 동일한 교재를 활용하였다.

중학교용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한 3권과 고등학교용 『대승의 길』 등 2권, 총 5여 권이 최초로 발행되었고, 1967년 3월 1일부터 대다수의 불교종립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¹⁰ 이로부터 10년이 지나 부제였던 불교교본을 전면으로 내세운 교과서 5권이 재발행된다.¹¹ 이 때부터는 모든 종립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채택하였다. 이 시기는 종교 교과가 최초로 편제된 제4차 교육과정 시기와 중첩되지만, 불교계 교과서가 정식 인정도서로 발행되지는 않았다. 이로부터 10년여 후에도 개정된 교과서들이 꾸준히 발행된다.¹²

앞서 소개한 교과서들은 불교계 학교들의 합의를 통해 전국 단위 차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교재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개발과 발행 과정 역시 이전에 비하여 단체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진행되면서, 교과서 제도에 대한 유용한 공동의 경험이 축적되었다. 교사용 지도서도¹³ 최초로 발행되면서 한 단계 전문화된 교재로 전국 단위의 불교교육이 이루어졌다. 『불교교본』이라는 표제로 발행되던 교과서명이 제5차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불교』로 변화하고 신앙교육보다는 교양교육적인 성격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 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빠르게 변화하는데, 국가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시기 후반부에 개발된 자체 교과서는 이후 인정도서로 발행된 교과서의 내용체계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3. 인정도서의 제작과 발행: 1991~현재

국가교육과정에 종교 교과가 정식으로 편제된 직후,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다. 이후 제5차 국가교육과정(1987.3.31~1992.6.29) 시기의 종교 교과서는 『종교(부제: 특정 종교명)』라는 제목으로 문교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되었다. 여전히 국가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서 집필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종파를 드러내는 제목에서 『종교』로 교과서명이 변화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였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 발행된 인정도

서들은 모두 『종교』라는 표제를 사용했고, 발행기관과 관련된 종교에 따라 괄호와 함께 특정 종교를 부기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의 종교 교과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이 특정종파의 신앙교육이 아닌 종교 일반에 대한 교양교육이라는 것이 차차 더 명확해진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제5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불교계의 『종교(불교)』 교과서들도¹⁴ 종교 일반 혹은 타종교에 대한 소개 내용을 수록하였고, 최초로 고등학교용 교과서가 문교부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6.30.~1997.12.29.)에는 종교 교과만의 내용체계가 최초로 제시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인정도서 심의기관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불교계는 이를 기본으로 목차와 내용을 구성한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도서심의를 통과하였다. 종교학 일반론, 이웃 종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마지막 단원에서 불교교육의 취지에 맞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된 중학교용 3권과 고등학교용 1권이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¹⁵

이런 경향은 제7차 교육과정(1997.12.30.~2007.2.27.)에서도 이어진다. 이 당시 교과서 구성 체계는 종교 교과의 내용이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서 시작하여 개별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거친 후 한국적인 상황에서 다시 살펴보고, 개별 학교의 해당 종교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¹⁶ 중학교용 1권, 고등학교용 1권이 각각 개발되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

이후 2007개정 교육과정(2007.2.26. 고시) 시기는 교과명이 ‘생활과 종교’로 바뀌면서, 『생활과 종교』 교과서에 특정 종교의 명칭이 사라진 큰 변화가 있었다. 별도로 주목할 만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이웃 종교계에서 『생활과 종교』 교과서를 개발할 때, 불교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생활과 철학』 교과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도서로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생활과 철학’ 교과 운영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의 사상을 철학적 관점에서 교육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종교 교과 개설 시 의무적으로 복수 설치해야 하는 선택교양과목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도 덜어주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해당 교과서 사용 기간은 길지 않았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명과 교과서명이 ‘종교학’으로 변화한 이후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불교계에서 관련 교과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계 종교 교과서의 변천 과정의 시기별 특징을 다시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초기와 중기는 불교계 종교교육이 도입되고, 국가교육과정 종교 교과의 편제를 계기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발전을 도모한 시기였다. 또한 그런 노력이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로 이어졌다. 인정도서 도입이라는 제도화 시기부터는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국가교육과정 종교 교과의 성격이 교양교육으로 강화되면서, 교과서의 내용 체계도 종교학 일반과 이웃종교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게 된다. 이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좀 더 다원적으로 발전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기존의 특정 종교계 학교 교육이 내포한 관성적 성격과 충돌하는 지점도 없지 않았다.

특히 교과서 개발에 있어 내부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국가교육과정 변천과 개정이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성찰보다는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도입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 교육 그 자체보다 외적인 요인이 더 큰 조건이 된 것이다. 물론 인정도서는 제도화를 통해 불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종교교육과 교과서가 발전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교육당국과 종립학교들 간의 합의 없이 진행된 제도화는 자성적인 발전 추진력과 성찰의 기회를 없애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종교학』 교과서 발행의 쟁점

‘종교학’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경북교육청(2009 개정교육과정)¹⁷과 세종교육청(2015개정교육과정)¹⁸에서 고등학교 『종교학』 교과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종교학이라는 객관적 학문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당국이 주도하여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기보다는, 종교학 교과서의 인정도서 심의주관이었던 당해 교육청들이 교과서 발행의 행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 종교 사립학교에서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교과서 채택에 난색을 표하였다. 결국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현재까지 『종교학』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¹⁹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종교교과서 개발이 영향을 받고, 교과서의 내용과 학교 현장의 교육내용이 일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종립학교의 특정 종교교육의 현실을 일부 전제하였던 때부터도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²⁰ 현행 교육 당국이 주체가 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인정제도를 외국의 경우처럼 자유발행제로 변경하여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²¹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고, 교육과정 차수에 적합한 교과서 없이 학교 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종교교육을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4차 교육과정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해소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보았다.

1. 종교 교과서 개발의 난제

그동안 거듭되는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불교계 종립학교에서는 종교 교과서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교과서 개발에 주력하다보니 실제 교육 현장의 활용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발생하였다.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려면 계속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체 발행 교과서의 부재는 이웃 종교 교과서 채택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든 불교계의 자체 교과서를 개발해 온 것이다. 하지만 불교 종립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교과서는 개발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상업적 판매도 불가능하다. 어려운 환경조건 속에서 개발부터 심의까지 2~3년을 소요해서 인정도서를 발행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된다. 거듭되는 교육과정의 개정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물적 인적 자원 투입의 어려움은 매번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육현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같은 발전적인 후속 조치 역시 난망하였을 것이다.

특히 ‘종교학’ 교육과정 도입 이후, 불교계는 2009 개정교육과정 및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종교학』 교과서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발행된 것은 없다.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등을 준수하여 교과서를 개발하였지만, 특정 종교와 관계된 개발주체에 대한 심의주체의 편견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교계의 지난 인정 심사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그리고 다른 종교나 종파 주도로 개발한 교과서도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교육 당국 외 주체가 개발한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불교계는 『종교학』 교과서 도입 없이 지난 차수의 교과서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교재를 사용하는 등 학교별로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현실은 불교종립학교에만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정식 교과서 부재의 종교교육이 길어진다면, 그동안 어렵게 자리 잡아온 정규 교과로서 종교교육의 정체성도 다시 흔들릴 수 있다.

2. 『종교학』 교과서 도입의 딜레마

교육 당국에서 발행한 『종교학』 교과서를 채택하기에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많다. 첫째, 학교 당국이나 현장 종교교사가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고자 하여도 다양한 종교인이 집필한 교과서 도입을 당해 학교나 학원에서 받아들이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일부 호교론적인 태도를 가진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부담된다.

둘째, 교과서 대금 부담 주체의 문제이다. 교육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여전히 특정 종파의 교육으로 간주되어 왔다. 종립학교에서만 종교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교육의 내용이 다원주의적 종교교양교육이어도 종단교육으로 여겨져 왔고, 교과서를 신앙서적으로 여기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유상 구매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불교계는 자체 개발한 종교 교과서를 무상 보급해왔기 때문에 구입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직접 제작하지 않은 『종교학』 교과서는 타 교과 교과서처럼 학생들의 부담이 된다. 교육청 주도로 개발한 교과서일지라도 기존의 무상 보급에서 유상 구매로 교과서 배포 방식이 변화할 경우, 크고 작은 현장의 갈등이 예상된다.

셋째,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종교학』 교과서가 구비되어 있다고 해서 특정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 종교 교과의 특수성에 따라 현재의 종교교사들은 해당 교과의 대학 등에서 특정 종교 위주로 전공교육을 이수한 이후 교직에 봉직하게 된 경우가 많다.²²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교사보다는 성직자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종교학 일반과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각기 다르다. 종교교육이 내포한 특성상 학교 당국과 현장 교사의 성향에 따라 교과과정이 변화하더라도 그 내용의 적용 여부는 개별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²³

또한 특정 종교전통에 의지한 교육일지라도 종교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나 보편적 인성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중립만이 요청되는 종교교육은 단순 지식 교육으로 이어지는 한계로 귀결된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객관적 교양교육으로 변화하게 한 최우선 조건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여러 관계와 상황 속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현행 『종교학』 교과서는 현장의 복잡성의 맥락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종교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현장과 소통하지 못한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인정제도는 자체 교과서를 개발할 수도 없고, 새로운 교과서를 도입할 수도 없는 학교현장의 딜레마로 나타나게 되었다.

3. 학교급별 교육과정 차이와 공백

현행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종교 교육의 기준이 다르다. 때문에 학교급별 차이에 따라 종교교육의 실시 현황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경우 정규 종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기에 창의적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비교과 영역에서 종교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식으로 종교 교과가 없으니 관련 교과서의 부재도 자연스럽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립 중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에서 개발한 『종교학』 교과서조차 고등학교 과정에만 해당한다. 기준이 될 만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없다는 건 개별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종합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국가교육과정의 부재로 생기는 공백들에 대해서 교과서가 발행이 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이 도입되어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의무교육 도입 시 교과서 대금 역시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언젠가는 교육청 주도로 개발한 『종교학』 교과서가 더 많은 학교 현장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 교과서가 과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국가의 교육재원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교과서를 채택한 종단과 학교의 책임인가, 아니면 종교교육 현장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일종의 국정교과서처럼 종교 교과서를 발행한 교육당국의 책임인가. 더불어 채택율이 낮은 교과서를 교육청의 재원과 행정력을 소모하며 계속 발행하는 문제도 또 다른 고민의 대상이다.

IV. 결어: 종교교육의 목적 재합의와 새로운 교과서 인정제도 도입

종립학교에 있어 특정 종교교육의 현실은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일부 전제되었으나 종교학 교과목의 등장부터는 교양교육을 지향하는 경향이 크게 짙어졌다.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종립학교라는 현실을 도외시 한 채, 교육정책 당국은 종교 교과가 내포한 이율배반성과 모호성을 해소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 교과서 역시 특정 종교 위주 관점의 배타성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 한 상황이었다.²⁴ 2007개정 교육과정의 『생활과 종교』만 해도 내용체계에 따라 교과서에 특정 종교에 대한 독립된 단원을 별도로 기술할 수 있었고, 개별 종교들이 개발한 교과서들이 출판되어 사용되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육청 주도로 『종교학』 교과서들이 발행되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못 하고 있다.

객관적 교양으로서의 종교학 교육을 목표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도, 종교학 과목 개설시 학생의 수업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수과목 설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은²⁵ 교육 당국 역시 종립학교 현장을 종파교육의 장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채택에 대한 별다른 노력과 시도도 감지된 바 없다. 학계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초교과적 교과서 개발위원회, 종교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과서 인정제도 도입 등도 실제로 시행되지 못 하였다. 시도교육청 주도로 개발된 2권의 『종교학』 교과서의 낮은 채택율은 현행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인정 제도가 채우지 못 하는 현실을 반증한다.

종교계 학교에서 편의적으로 시행하던 종교교육의 제도화는 공교육의 교양교과로서 자리매김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공적 영역으로 그 담론이 확장되고, 그 공공성을 부각시킨 주요한 계기이자 만남이었다. 그러나 제도와 학교 현장의 입장 차이로 인한 평행선은 교과서의 부재로 이어지는 개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발만 되고 사용되지 않는 교과서 발행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하다. 종립학교만이 종교교육을 시행하는 현실에서 현재의 제도를 구현한다는 것은 이루기 힘든 희망이다. 공교육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제도 속에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과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과 종교계 사학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은 필수이다. 종교 교과 내용체계 구성부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국가교육과정과 학교현장교육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교과서 문제도 그 합의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교과서 인정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인정제도의 다양화가 종파교육으로의 회귀로 이어지리라는 일부 걱정 어린 시선에 대해서는 유럽과 북미의 제도와 교과서 사례 연구가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 외에도 현재 종교 교과서 인정제도를 보완할 다양한 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여야 한다.²⁷ 교육자와 학습자의 교육경험이 감응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과서 발행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개선방향의 바탕은 특정종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²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종립학교에서는 아힘사 워크북이라는 부교재를 발행하여 종교교육에 도입하였다. 아힘사는 불살생을 의미하는 인도 종교의 사상이지만, 특히 불교에서는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중요하게 강조한다. 이런 아힘사 사상을 비폭력 대화법을 훈련하는 철학적 배경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등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인의 신앙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개별 종교의 특수성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와 세상을 성찰하는 보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립 학교 현장과 교과서 개발 주체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종교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뱀불 사건,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교육자에 대한 파면 사건 등 사회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올바른 종교교육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특정종교기관에서 하나의 종교만 배우면서 다른 종교나 보편적 종교성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도그마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곤 한다. 이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바로 서고, 확대되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종교교육도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갈등 해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종교교육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극하도록 『종교학』 교과서가 그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요약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의 중등 종교 교과 개정에 따른 교과서 발행의 변천과 그 과정에 드러난 쟁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종교교육과 교과서 개발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중등 종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계의 교과서 개발의 역사와 변천을 분석하여 현행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 현황에 따른 쟁점들을 점검하였다. 근대 불교계 학교들이 설립되며 불교교육이 도입되고, 제4차 국가교육과정의 종교 교과 편제를 계기로 종교교육이 공식화된다. 이를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종교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는 제도화가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종교 교과가 내포한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교과서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종교교육의 보편적 현상으로 연결된다.

앞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 교과서 개발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위한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하다. 공교육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과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행 교과서 인정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교육자와 학습자의 교육경험이 감응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과서 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특정종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등 종교교육이 개별 종교의 특수성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와 세상을 성찰하는 보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바른 종교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대안으로 등극하도록 『종교학』 교과서가 그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종교교육, 종교 교과서, 불교 교과서, 불교계 종립학교, 인정제도

참고문헌

-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강신옥, 『불교종립학교의 불교교과서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4.
- 경북교육청, 『(고등학교) 종교학』, 파주: (사)한국검인정교과서, 2012.
-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종교학)의 개정 흐름과 2015 종교학 교육과정」, 『종교교육학연구』 5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고원국, 「원불교 중립학교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구본만, 「‘종교학’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41(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김귀성, 「“종교” 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 「원불교 교립 중등학교 “종교” 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38(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 김남일, 「불교종립학교 교육자료 목록집」, 『제40회 교학연구발표회 연구자료 보고서』, 서울: 불교교육연합회, 2010.
- 김남희, 「글로벌리즘을 향한 가톨릭 종교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37(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김용표, 「불교계 중립학교와 종교교재-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상-」,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김윤주, 『진리의 생활』, 서울: 원효학원, 1960.
- 김은영, 「국가교육과정 변천과 불교종립학교 종교 교과서」,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불교학회, 2014).
- , 「불교 중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가교육과정 변천과 ‘종교학’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 「중립학교 종교교사 양성제도의 변천과 재교육: 불교계 중등학교 교법사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55(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 김재영,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변화와 종교교과서 개발」, 『한국불교학』 72(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 「통일교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38(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 불교교육연구위원회 편, 『중 · 고등학교 불교교본 (교사용 지도서)』,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 불교교육연합회 편, 『중학교 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91.
- 편, 『중학교 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91.
- 편, 『중학교 불교 3』, 서울: 대원정사, 1991.
- 편, 『중학교 종교(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95.
- 편, 『중학교 종교(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95.
- 편, 『중학교 종교(불교) 3』, 서울: 대원정사, 1995.

- 편, 『고등학교 종교(불교) 상』, 서울: 대원정사, 1991.
- 편, 『고등학교 종교(불교) 하』, 서울: 대원정사, 1991.
- 편, 『고등학교 종교(불교)』, 서울: 대원정사, 1998.
- 편, 『고등학교 종교(불교)』,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출판사, 2002.
- 편, 『중학교 종교(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98.
- 편, 『중학교 종교(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98.
- 편, 『중학교 종교(불교) 3』, 서울: 대원정사, 1998.
- 편저, 『종교(불교)(고등학교)』,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2.
- 편저, 『종교(불교)(중학교)』,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2.
- ,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불교 시청각 교재』,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출판사, 2002.
- 불교교육연합회 교재편찬위원회, 『생활과 철학(고등학교)』,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2.
- , 『생활과 철학(중학교)』,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2.
- 불교종립학원연합회 편, 『부처님의 생애(불교교본) 중 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 편, 『맑은생활(불교교본) 중 I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 편, 『바른 길(불교교본) 중 II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 편, 『진리의 생활(불교교본) 고 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 편, 『대승의 길(불교교본) 고 I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 편, 『중학교용 불교교본 1』,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 편, 『중학교용 불교교본 2』,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 편, 『중학교용 불교교본 3』,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 편, 『고등학교용 불교교본 1』,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 편, 『고등학교용 불교교본 2』,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 편, 『중학교 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88.
- 편, 『중학교 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88.
- 편, 『중학교 불교 3』, 서울: 대원정사, 1988.
- 불교종립학원연합회(불교교육연합회) 편, 『고등학교 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88.
- 편, 『고등학교 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88.
- 세종교육청, 『(고등학교) 종교학』, 파주: (사)한국검인정교과서, 2015.

- 신광철, 「종교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교육과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7(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유선희, 「기독교 종교교과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논의」, 『신학논단』 89(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 2017).
-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 이재일,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이학주, 「불교 중등학교 불교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이혜성 엮음, 『자비(불교독본 I)』, 서울: 청담학원, 1975
- 엮음, 『정진(불교독본 II)』, 서울: 청담학원, 1976.
- 엮음, 『지혜(불교독본 III)』, 서울: 청담학원, 1977.
- 엮음, 『정각(불교독본 IV)』, 서울: 청담학원, 1978.
- 엮음, 『광명(불교독본 V)』, 서울: 청담학원, 1979.
- 전국교법사단, 『중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3.
- 『고등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3.
- 『중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1 (시안)』,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9.
- 『중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2 (시안)』,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9.
- 『중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3 (시안)』,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9.
- 『고등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1 (시안)』,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9.
- 『고등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2 (시안)』,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9.
- 정진홍, 「제 7 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 서울: 대한민국 학술원, 2002.
- 조은하, 「개신교 종립학교의 종교교과서 분석」,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최영희, 「가톨릭 학교의 지침과 종교교재」,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한국종교교육학회, 『2020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중등 종교 교과서 내용구성과 집필의 문제』, 2020.

Endnote

- 1 1949년 12월에 제정된 <교육법>(법률 제 86호, 제정·시행 1949.12.31.)에 최초 교과서와 관련된 조항이 “제157조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는 문구를 통해 등장한다. 이후 교과서 관련 정책을 통해 별도의 시행령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66호, 제정·시행 1950.4.29.) 및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367호, 제정·시행 1950.4.29.)로 분리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9호, 시행 2020.1.7., 일부개정.)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 2 제6차 교육과정 발표 후, 국가교육과정의 종교 교과가 내포하고 있는 종교과목 설치의 법률적 모호성, 종교교육 내용의 모호성, 그리고 종교교육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호성이 지적되었다. 정진홍, 「제 7 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3 구본만, 「‘종교학’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41(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김귀성, 「“종교” 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김재영,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변화와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37(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신광철, 「종교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교육과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7(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등.
- 4 강신옥, 『불교종립학교의 불교교과서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4; 고원국, 「원불교 종립학교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김귀성, 「원불교 교립 중등학교 “종교” 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38(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김남희, 「글로벌리즘을 향한 가톨릭 종교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37(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김용표, 「불교계 종립학교와 종교교재-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상-」,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김은영, 「국가교육과정 변천과 불교종립학교 종교 교과서」, 『한국불교학』 72(서울: 한국불교학회, 2014) 김재영, 「통일교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 38(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유선희, 「기독교 종교교과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논의」, 『신학논단』 89(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 2017); 이재일,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조은하, 「개신교 종립학교의 종교교과서 분석」,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최영희, 「가톨릭 학교의 지침과 종교교재」,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등.
- 5 권상로·김동화·조명기·박춘해, 『불교독본』 (부산: 정토문화사, 1958).
- 6 강신옥, 「불교종립학교의 불교교과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0쪽.
- 7 김윤주, 『진리의 생활』 (서울: 원효학원, 1960); 『부처님 생활기』 (서울: 원효학원, 1960).
- 8 이해성 엮음, 『자비(불교독본 I)』 (서울: 청담학원, 1975); 『정진(불교독본 II)』 (서울: 청담학원, 1976); 『지혜(불교독본 III)』 (서울: 청담학원, 1977); 『정각(불교독본 IV)』 (서울: 청담학원, 1978); 『광명(불교독본 V)』 (서울: 청담학원, 1979).
- 9 중학교는 1차(1967년), 2차(1977년), 3차(1988년), 4차(1995년), 5차(1988년), 6차(2002년)에 걸쳐, 고등학교는 1차(1967년), 2차(1977년), 3차(1988년), 4차(1991년), 5차(1996년), 6차(2002년)에 걸쳐 개발하였다. 김남일, 「전국교법사단의 역사와 발자취」, 『제40회 교학연구발표회 연구자료 보고서: 불교종립학교 교육자료 목록집』 (서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010), 18-19쪽.

- 10 불교종립학원연합회 편, 『부처님의 생애(불교교본) 중 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밝은생활(불교교본) 중 I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바른 길(불교교본) 중 II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진리의 생활(불교교본) 고 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대승의 길(불교교본) 고 II』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67).
- 11 불교종립학원연합회 편, 『중학교용 불교교본 1』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중학교용 불교교본 2』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중학교용 불교교본 3』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고등학교용 불교교본 1』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고등학교용 불교교본 2』 (서울: 불교종립학원연합회, 1977).
- 12 불교종립학원연합회 편, 『중학교 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88); 『중학교 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88); 『중학교 불교 3』 (서울: 대원정사, 1988); 『고등학교 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88); 『고등학교 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88); 불교교육연합회 편, 『중학교 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91); 『중학교 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91); 『중학교 불교 3』 (서울: 대원정사, 1991); 『고등학교 종교(불교) 상』 (서울: 대원정사, 1991); 『고등학교 종교(불교) 하』 (서울: 대원정사, 1991); 『중학교 종교(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95); 『중학교 종교(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95); 『중학교 종교(불교) 3』 (서울: 대원정사, 1995).
- 13 전국교법사단, 『중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3); 『고등학교 종교(불교) 교사용지도서』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3).
- 14 불교교육연합회 편, 『고등학교 종교(불교) 상』 (서울: 대원정사, 1991); 『고등학교 종교(불교) 하』 (서울: 대원정사, 1991).
- 15 불교교육연합회 편, 『중학교 종교(불교) 1』 (서울: 대원정사, 1998); 『중학교 종교(불교) 2』 (서울: 대원정사, 1998); 『중학교 종교(불교) 3』 (서울: 대원정사, 1998); 『고등학교 종교(불교)』 (서울: 대원정사, 1998).
- 16 불교교육연합회 편, 『중학교 종교(불교)』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출판사, 2002); 『고등학교 종교(불교)』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출판사, 2002).
- 17 경북교육청, 『(고등학교) 종교학』 (파주: (사)한국검인정교과서, 2012).
- 18 세종교육청, 『(고등학교) 종교학』 (파주: (사)한국검인정교과서, 2015).
- 1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장이 선정하며, 학교별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되는 자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등에서도 출판사별 교과서 채택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채택률을 알기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별도로 『종교학』 교과서의 채택율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보상금 지급대상 저작물 검색 기능을 활용한 결과 『생활과 종교』 발행분까지는 보상금 지급대상 저작물로 확인이 된다. 실제로 교과서가 채택이 되어 활용이 되었기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반면 『종교학』 교과서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은 전혀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채택률이 0%에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 계열 학교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 『종교학』 교과서를 채택한 기록도 있다(손원영, 「개신교 중립학교에서의 종교 교과서와 종교평화적 성찰」, 『2020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중등 종교 교과서 내용 구성과 집필의 문제』, 31쪽, <표3> 참조.). 향후 교과서 채택률과 활용에 대한 별도의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 20 신광철, 앞의 글, 14-15쪽.

- 21 김재영, 앞의 글(2011), 28-33쪽.
- 22 김은영, 「종립 학교 종교 교사 양성제도의 변천과 재교육: 불교계 중등학교 교법사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55(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 23 강돈구 외, 앞의 책, 73, 79쪽; 정진홍,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서울: 대한민국 학술원, 2002), 306-307쪽.
- 24 김귀성, 앞의 글(2006), 125-129쪽.
- 25 이 문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전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종교학)의 개정 흐름과 2015 종교학 교육과정」, 『종교교육학연구』 5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26 김재영, 앞의 글, 28-33쪽.
- 27 이학주, 「논평문: 불교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 교과서 변천과 과제」, 『2020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20), 117쪽.
- 28 김용표, 「불교계 종립 학교와 종교교재-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상-」,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